

사회

“세계는 아직 5·18 잘 모른다”

‘2011 광주인권상’ 수상 인도 비나약 센 씨
5월 정신 확산 인권·민권 네트워크 구축 필요

올해 광주항쟁 31주년을 맞아서도 국제사회에서 광주정신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정신 확산을 위해서는 광주를 비롯한 국내 NGO단체 등이 주축이 돼 범국가적인 인권·민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나약 센(61·Binayak Sen)씨가 17일 수상소감과 함께 5·18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사인 그는 “인도에서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은(그 가치와는 달리)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인도의 현재가 한국의 과거와 비슷한 만큼 인도인들에게 5·18에 대해 소개하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광주정신이 세계적인 가치로 인정받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인권상 수상이 한국과 인도의 시민

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정부가 천연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지역민들을 쫓아내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 유린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다국적 기업과 연관이 있다고 비나약 씨는 주장했다.

그는 인권 활동을 벌이다가 지난 2007년 투옥돼 인도고등법원으로부 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그의 보석을 허가하고, 광주인권상 시상식 참석을 위한 출국을 허락했다.

올해 처음 제정된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평화를 위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가족협회’ 소속 다니엘라 키타인(여·63·Daniella Kitain·이스라엘)씨와 마젠 파라즈(36·Mazen Faraz·팔레스타인)씨도 함께 5·18재단을 방문했다.

이들은 “(5·18을 경험한)광주 시민 등 한국인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가족 협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 500여명이 지난 1995년 설립한 단체다.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은 이날 오후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전야제에 참석했다. 18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3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20일 출국한다.

그는 “전체 국민의 30% 이상이 가

사회단체가 서로 연대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80년 5월 인권 침해를 경험한 광주 시민들이 앞장서 인도에서 이뤄지는 인권 유린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비나약 씨는 인도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전체 국민의 30% 이상이 가



오월 어머니들 헌화

5·18 민주화운동 31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오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오월 추모제에서 오월 어머니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우울증 아내 우발 살해 남편 석방

광주지법 참여재판, 아내 헌신적 간호 참작 집유 선고

20여년간 우울증을 앓던 아내를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했다가 기소된 5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헌신적으로 아내를 치료해온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7일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폭행치사·사체은닉)로 기소된 김오(5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를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시신을 땅에 묻어 숨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그림자 배심원으로 조순대 법과대 3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다.
실제 배심원과 그림자 배심원 모두 유죄 의견을 냈으나 양형에서는 실제 배심원은 다수가 집행유예, 그림자 배심원은 모두 실형 의견을 제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 16일 정오께 자신의 차량에 아내를 태우고 병원에 데려다 주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장성군 북하면에 차를 세우고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숨진 아내를 인근 웅덩이에 넣고 쓰레기와 버려진 가구 등으로 덮은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그림자 배심원으로 조순대 법과대 3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다.
실제 배심원과 그림자 배심원 모두 유죄 의견을 냈으나 양형에서는 실제 배심원은 다수가 집행유예, 그림자 배심원은 모두 실형 의견을 제시했다.

그림자 배심원제는 배심원 후보자나 지원자로 구성된 그림자 배심원단이 재판에 참관하고 모의평결을 하는 제도로, 판결 후 시행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재판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뿐 모의평결 내용이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부서장 전준호씨

‘연 251% 살인 이자’ 불법 대부업자 입건

경찰청은 17일 광주지방경찰청 등 광주·전남지역 총경급 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
경찰청은 광주경찰청 전준호 정보과장을 동부서장으로, 양성진 동부서장을 광주경찰청 정보과장으로 발령했다.
경찰청은 또 전남경찰청 운영팀 청문감사관을 화순서장으로, 한재숙 화순서장을 전남경찰청 청문감사관으로 임명했다.

어장 파손 뺑소니
외국 선박 붙잡아

여수해양경찰은 17일 어장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파나마 국적 1만7000t급 철광석운반선 T호를 나포해 선장 P모(58·파키스탄 국적)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T호는 지난 16일 오후 8시15분께 여수 돌산읍 대단 등대 동쪽 2.5km 해상에 설치된 최모(51·여수시)씨의 정지망 어장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경찰

목포경찰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연 44%)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의 등)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또 전남경찰청 운영팀 청문감사관을 화순서장으로, 한재숙 화순서장을 전남경찰청 청문감사관으로 임명했다.

광양경찰

광양경찰은 17일 돈 문제로 다투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5분께 광양시 광양읍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이웃에 사는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다투다 흥기 등으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1월부터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선 이자를 떼고 일수와 월수로 연이율 133~251%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급전이 필요한 서민 70여 명에게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 대출한 돈은 9억 3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돈 문제로 말다툼 이웃 살해 50대 영장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선 이자를 떼고 일수와 월수로 연이율 133~251%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급전이 필요한 서민 70여 명에게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 대출한 돈은 9억 3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나원침 (8316) 김중두



광주 북구지역 정전 제어장치 결함 추정

지난 16일 광주시 북구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광주일보 5월 17일 6면)은 변전소 기계장치 결함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17일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 오후 7시48분과 7시55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등 북구 지역 6개 동 2만 가구에 2차례에 걸쳐 정전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가에서 정전은 1분 가량이 지난 뒤 해소됐으나, 몇몇 아파트 단지에서는 30분이 넘도록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정전은 북광주 변전소 주변압계에 있는 차단기 제어장치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설명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정전의 정확한 원인을 최대한 빨리 밝혀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호기 기자 kimho@kwangju.co.kr

도박빚 갚으려 재력이 남치 5억 뜯어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평소 안면이 있던 재력을 남치해 5억원을 뜯어낸 혐의(강도상해)로 조직폭력배 오모(50)씨 등 2명을 구속.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3월30일 밤 10시30분께 익산시 영등동 A(48·사업)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퇴근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렌터카로 납치해 현금 5억원을 빼앗은 혐의.

○오씨는 경찰에서 “필리핀과 마카오 등 도박장에서 10여원을 잃어 돈이 없다고 소문난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재력이 남치해 5억을 뜯어낸 혐의(강도상해)로 조직폭력배 오씨 등을 검거.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김중두 기자 knews@kwangju.co.kr

사라진 5·18묘지 ‘소망의 벽’ 그림·문구

국립 5·18 민주묘지 내 ‘소망의 벽’에 새겨진 그림·문구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림·문구를 새겨넣은 벽면을 흰색 페인트로 덧칠해 없애버린 것이다.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2006년 5월 12일 국립 5·18 민주묘지 역사의 문 뒤편에 ‘소망의 벽’이 세워졌다. 묘지관리소가 신 묘역에서 구 묘역으로 가는 길 오른쪽에 있던 높이 2m·길이 165m의 콘크리트 벽에 흰색 페인트를 칠해 5·18에 대한 사회와 기원·그림 등을 새겨 넣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의 한(恨)과

진상규명 해결 염원, 평화·화해 기원 장소 관리소 “미관 해친다” 2007년 페인트 덧칠



기원을 대변하던 공간이 감쪽같이 없어졌다.
지난 2007년 5·18 민주항쟁 27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신 묘역에 대한 시설 보수 공사를 하면서 없어버린 것이다. 현재 ‘소망의 벽’은 기존에 새겨넣은 그림·문구 위에 흰색 페인트를 덧칠해 과거의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은 상태다.
참배객 이모(34)씨는 “과거 이 길을 지나면서 소망의 벽에 새겨진 글·그림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

는데, 사라져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 이형주 소장은 “처음부터 벽면에 그림·문구가 없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근무했던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당시 작품의 질이 떨어지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그림 등을 지우고 다시 하려다가 작업이 중단돼 현재 상태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 (Kjhr) insurance services. Features a cartoon knight on a horse and text promoting 'Good insurance, use it wisely' and 'K International Insurance' with contact numbers for Seoul, Suncheon, and Mokpo branches.